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 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의 고난” [롬 8:17-18]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고난을 즐기고, 자기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로피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고, 자녀가 탄생하는 기쁨을 위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듯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고난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성도의 고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할 고난은 아름다운 사랑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여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희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고난의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면 그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에는 우리가 감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 받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받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위해 고난 받았습니다. 비방 당하고, 조롱 당 하고 생명을 잃는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며 그 끝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내는 우리 가족되길 바랍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삽시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희생한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당신은 복음을 위한 사랑의 희생에 동참하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았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또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복음을 전해야할 가족과 이웃, 친구가 있다면 이름을 적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